

“청계천 복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이명박 서울시장 또 망언... 불교계 우려 확산

지난해 5월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근 "청계천 복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말해 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11월 11일 한 개신교 행사에 참석해 "청계천 복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에 청계천 준공식을 할 때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준공예배를 드렸다"고 발언했다. 9월 12일에는 "청계천 복원은 보이지 않는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시장이 이러한 편향 발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13일 한 토론회에 나가 "나

는 서울시장이지만 교회 장로이기도 하다. 교회 행사에 참석해서 그런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11월 22일 논평을 발표하고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특정 종교적 발언을 해 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청계천 복원이 '특정 종교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 시장이 종교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작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며 "이명박 서울시장의 특정 종교에 올

타리 지워진 서울시장이란 아닌 서울 시민과 온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시장으로 온전히 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이사장은 "봉헌 발언으로 이미 많은 시민들이 많은 정신적 피해를 본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에 이명박 시장은 진실로 참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김기현 변호사는 "특정 종교행사에 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보다 명확하게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여성연구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1월 24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5주년 기념식행사에 열 예정이다. 또 한국여성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불교여성학연구소'를 설립을 위한 연구기금 조성사업도 2007년부터 진행한다.

김인숙 원장은 "그간 불교여성개발원은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비종교적인 활동을 벌

2010년까지 여성인재 집중양성

불교여성개발원 10년비전 발표

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비전'을 발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발표한 '2010비전' 3대 주요사업목표는 불교여성아카데미 창립, 행복한가정지원센터 설립, 불교여성학연구소 개설 등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10년까지 200명의 여성불자 인재양성을 목표로 2007년 불교여성아카데미를 창립하고, 기존의 '행복한 혼인준비교실'을 강화한 '행복한가정지원센터'를 2006년

여왔다"며 "앞으로 여성불자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이종종교, 더 나아가 불교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개발원 산하 교도소교화팀 윤순옥 팀장 외 6명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교도소교화팀은 '교도소 교화활동 사례집'을 출간했다.

이은비 기자

“조계종 선거 직선제 도입을”

청정선거본부 해산성명서 주장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해왔던 청정선거문화정책 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의정 등, 이하 청정선거정책 운동본부)가 11월 21일 공식 해산하며 직선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청정선거정책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32대 총무원장 선거는 상대적으로 청정하게 진행됐다고 자평한다"면서도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청정선거정책 운동본부는 이어 △ 후보단일 방지대책과 후보자 검증 장치 마련 △ 선거공영제 실현 △ 각급 총무원의 선거 중립 명시화 등을 주장했다.

청정선거정책 운동본부는 또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세민, 장주, 도공, 월서 스님은 참회하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철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11월 21일 영등포장애복지관 착공 현장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착공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1월 21일 서울 영등포 보현의 집(원장 지계) 건설 부지에서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착공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관이 조속히 건립 돼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직영의 12번째 장애인복지관으로 대지 645평, 건평 1173평에 이르는 대규모 장애인복지관이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될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체육단련실, 사회재활실 등을 비롯해 컴퓨터교육실, 의무조기교육실 등의 교육시설과 취업정보, 직업적응훈련실 등의 장애인 취업 정보 센터 운영에 역점을 두게 된다.

한편 이날 건립 기공식은 영등포 보현의 집 증·개축과 함께 진행됐다. 노숙자 중간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보현의 집은 이날 증축을 통해 1개 층을 약 220평 규모로 증축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2층 건물은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지을 스님은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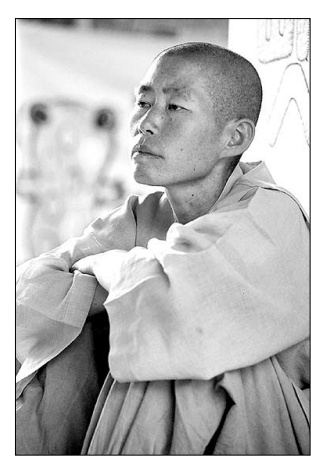
11월30일 천성산 조사 마무리... 두달째 소식 두절

천성산 환경조사가 11월 30일 공식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천성산 조각이' 지을 스님(사진)의 행방이 두달째 확인되지 않고 있어 주위의 우려가 높다.

지을 스님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9월 중순.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9월 6-21일 부산 민주공원 전시실에서 진행된 '초록의 공명과 생명의 숨소리' 전시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공식일정이었다. 이후 스님은 휴대 폰과 노트북 등을 동생 조경자씨에게 모두 맡긴 채 종적을 감췄다.

조경자씨는 "가끔 스님과 통화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 계신지는 모른다"며 "음식물을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지을 스님은 11월 24일 천성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저의 건강은 악화되어 있고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처럼 저는 꼭 풍우치는 바닷가에 서있는 곧 무너져 버릴 관자놀이 틀림없지만 아름다움과 생기를 잃어가는 천성산의 아픔을 놓을 수 없다"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유철주 기자

한편, 8월 30일부터 정부와 천성산 대책위가 함께 진행한 천성산 환경조사가 11월 30일 종료된다. 구조지질분야를 비롯해 △지하수 △생태계 △삼반공학 △지구물리탐사 등 5개 부문에 걸쳐 실시된 공동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묶여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공동조사 종료 후에는 천성산에서의 발파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활기찬미래연구소 개소 노인문화 창출·권익보호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는 11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노인취업문제 등을 집중 연구하게 될 '활기찬 미래연구소'를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정성욱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 운영 사절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활기찬 미래연구소가 사회복지실현현장과 학문을 연계해 노인복지의 실천적 연구를 분야별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동대 일산불교병원 고양 상의외 의료협약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은 고양 상공회의소와 진료 의료기관 협약을 11월 18일 체결했다.

고양 상공회의소 박종기 회장은 "지역 상공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문장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앞으로 고양시를 대표하는 유관기관인 상공회의소 소속 직원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수 기자

김의정 조계종 중신회장 취임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제22·23대 회장 이·취임식을 겸한 불기 2549년 입원대회를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해인사와 해인관광호텔에서 개최했다.

200여명의 전국의 신도회 임원이 참석한 입원대회는 제22·23대 회장이 취임식에 이어 신도회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 및 종합 토론, 해인사 비로자나불 진건, 무생계 수계 법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제23대 회장단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중앙신도회의 지난 과정을 반추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

중앙신도회 제23대 김의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선 활동 기반이 될 신도회관 건립에 전력을 다하고, 중단의 발전과 신도대중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 등 중앙신도회의 존재 이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김의정 회장 등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유에 대해 충실하겠다"며 발전기금 3억원의 쾌척했다.

백정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천 년고찰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지난 6년간의 중앙신도회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무량하며, 신심 깊고 활동을 많이 하는 김의정 회장이 신도회의 직무를 맡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대원불교대학, 불교진흥원으로 학사 이전

대원불교대학이 서울 마포구(재) 대원불교진흥원 다보빌딩으로의 학사이전을 예고하면서 제2의 개교를 선언했다.

대원불교대학 후원이사회 위원장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과 김범준 상

임법사 등은 11월 21일 불교진흥원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원불교대학은 그 동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불자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내년 3월부터 불교진흥원 문화센

터 건물로 불교대학을 옮겨 모든 강의와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대원불교대학은 이전에 맞춰 내년 3월 학기부터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를 개설해 불교상담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불교와 접합된 상담 기법,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교과과정을 준비 중이다. 학교 발전을 위한 준비

작업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원불교대학이 이번에 새로 구성된 후원회(위원장 송석구)는 교수 및 교직원, 기업인 등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사이전 기념 문헌 초청 리셉션' 등을 통해 대원불교대학의 이전을 알리고 힘을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02)754-1613 김강진 기자

더불어 사는 밝은 세상을 위한 송년대음악회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저무는 한 해를 회향하고, 새로운 해의 도약을 지혜와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송년대음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무려 큰스님께 자비로운 감로법문을 청함으로써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는 향상의 기쁨을 삼고저 합니다.

불타(佛陀)의 위신력 깊은 신행생활로 미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두를 위하여 신년 자축의 뜻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공연도 준비하였습니다.

두루 함께 동참하시어 뜻 깊은 시간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2005년 12월

광덕사선원 · 석가사 · 불교방송 합장

송년대음악회

- 일 시 : 2005년 12월 10일(토요일)
- 장 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송년음악회 : 오후 6시 (리셉션: 오후 5시 20분)



- 사회자 : 이상벽
오프닝 음악 - 불교방송전속관현악단
1. 구해스님(무형문화재) - 천수바리춤
'천수바리춤은 <천수경>중 '신묘장구대다라니' 진언을 영송하며 추는 춤으로 불법을 수호하고 악귀를 물리쳐서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춤으로 앉손에서 바리를 휘감아 돌리는 춤사위는 장엄함을 연출한다.
 2. 김신스님 - 귀거래사, 아름다운 강산, 무상
 3. 김련영 - 실랑실랑, 기인
 4. 소프라노 김원정(명성황후 히로인)- '명성황후' 주제곡, Memory, 그리운 금강산
 5. LMB Singers(불교 전문 성악 중창단)
비림부는 산사, Love me tender, 어디로 가야하나
 6. 김종환 - 돌이 하나되어, 사랑을 위하여, 백년의 약속
 7. 장윤정 - 꽃, 짝짜라, 어머니
 8. 난타 - 티악퍼포먼스
클로징 음악 - 불교방송전속관현악단

송년 법어 - 광덕사 조일 무어 큰스님

- 주최 광덕사선원(충북 단양)
- 주관 석가사 · 불교방송
- 후원 아리랑TV, 불교TV, 뉴질랜드 대사관, 스리랑카 대사관
- 행사 방송일시 BBS 불교방송 - 2005년 12월 18일(일요일), 저녁 8시 ~ 9시
불교TV - 2005년 12월중 4회 방영,
아리랑TV - 2005년 12월중 방영예정

※ 입장권 선착순 배부처(무료) : 석가사
행사당일 입장권 없이는 입장불가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관리동 186-5 ☎ 02)354-1141



☎ 교통편 안내
시내버스 : 702, 752, 7019, 7712, 7717, 7719, 7722, 7730 (은평구청앞 하차)
좌석버스 : 7022(수협앞), 9701, 9705 (은평구청앞 하차)
마을버스 : 7740(문화예술회관앞 하차)
셔틀버스 : 진관리동 체육센터
지 하 철 : 3호선 녹번역(5번출구), 6호선 역촌역(3번출구)